

연극 <에덴미용실> 오디션 지정대사

- A
- 유죄를 인정하는 피고인이 법정에서 남탕에 들어섰어요. 부끄럽고 떨리는 걸 참느라 눈물이 흘렀어요. 미애가 부러워하는 내 외모는 나의 자랑이었지만 그건 옷을 벗기 전의 모습일 뿐 옷을 벗으면... 괜찮다. 나는 남자니까 미애는 보지가 있지만 남자가 있으니까 나는 남탕에 나는 남자다. 마음 속으로 남자가 되어야 한다는 말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곳은 온통 백색이었어요. 조화였지만 물기를 머금고 있어서 그런지 싱그러움이 뿜어져 나오는 벽에서는 신들의 목소리가 새어 나오는 것 같았어요. 훌쩍 벗은 커다란 남자들이 활보하고 다니는 그곳은 시끄럽고 분주하고 활달한 백색 신전이었어요. 조금씩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런데... 전 판도라의 상자를 열고 말았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긴 칼 못지않은 추상같은 위엄으로 서있어야 하거든요. 특히 제가 서있는 남탕의 백색 신전에서는 그게 어울리는데... 제 상상과는 전혀 판판이었어요. 다들 조그맣고 쭈글쭈글한 걸 달고 있었어요. 남자들이 절 알아보고 위협하지 않을까 겁먹고 흥분했던 마음이 가라앉자 커다란 절망이 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날 쳐다보지 않고 그냥 지나칠 수가 있죠? 이렇게 예쁜 내가 목욕탕에서 발가벗고 서 있는데...
- 보라구요, 난 그냥 남자가 아니라 여자보다 예쁜 남자라구요.

- B
- 엄마의 얼굴을 보고 있자니 죄책감이 밀려와요. 정확하게 설명할 재간은 없지만 이층에 도사리고 있는 위험을 나는 알고 있었어요. 어릴 적에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그 행동들은 여자보다 예쁘다고 했던 의붓아들이 아니라 여자인 경미 누나였다는 걸 전 알고 있었어요. 경미누나에게 그 사실을 경고 했어야 옳았어요. 경미누나한테 질투를 느끼기 시작한 건 여탕 출입을 할 수 없게 되고 부터예요. 엄마의 신뢰와 아버지의 눈길 모두가 가진 경미 누나가 부러웠어요. 그날 아버지가 나를 향해 손짓할 때 그 손길이 경미 누나가 아니라 바로 나였다는 게... 무섭고 두려운 동시에 쾌감을 느꼈어요. 지금 엄마가 이렇게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건 다 제 탓이에요. 제 잘못으로 경미누나와 엄마 두 여자 모두를 슬프게 만들었습니다.

연극 <에덴미용실> 오디션 지정대사

C 머리만 적시는 게 아니라 두피전체로 물을 적셔야 하는 거야. 팁 하나! 우리 미용실이 처음이다 그럴 땐 무조건 이걸 쓰는 거야. 제일 비싸고 향긋해서 대접 받는 기분이 들거든. 일부러 이틀씩 머리를 안 감고 오는 반장 아줌마 같은 사람들은 저거. 샴푸도 유통기한이 있어요. 내말 무슨 뜻인지 알지? 샴푸 거품은 충분히... 양 손을 교차하면서 전두부 측두부... 그 두부가 아니고... 잘 했어. 머리 밑에서 머리 위로 헤어 라인을 따라 지압을 하면서 올라오는 거야. 손톱 기르지 말랬지? 손톱 끝이 두피를 찌르잖아? 아무리 머리모양이 잘 나와도 나갈 때 돈 던지고 나간다 너. 아니 그렇게 하면 안되고. 타이밍이 틀렸어요. 잘 들어. 한 번만이야. 두 번은 안돼. 인생이 타이밍이지. 여자한테 키스도 먼저 하기 전에 가슴 먼저 만지는 꼴이야 그건. 너무 급해. 머리위로 손이 올라와 끝까지. 이때 잠시 머무르는 듯 하다가 빼는 거야. 너무 길어. 아니 그건 너무 짧아. 네 감을 믿어봐. 그렇지.

(사이)

이 짧은 순간에 내 손길을 간절하게 원하게 만드는 거야. 또 너무 잘해서 잠들어버리면 곤란해. 샴푸 받다가 잠들어서 깨잖아 그럼 짜증이 슬슬 나요. 잘하네. 역시 내 제자야. 나한테 배웠다고 엄마한테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지? 그래 이왕 가르치는 거 좀 더 확실히 해두자, 네가 내 첫 제잔데. 이건 섹스라고 생각하면 훨씬 쉬어. 일단 여자를 안심시켜. 그러나,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기대감은 증폭 시켜야해. 샴푸는 일종의 전희지. 야야, 다 알면서 모른 척 하면 실력 안는다. 시침 떼고 섹스 하는 거 그게 젤 별 볼 일 없는 거야. 제대로 느끼려면... 아, 담배 땡긴다.